

### 나주시, 취약계층 이동목욕서비스 ‘호평’

전남복지재단 ‘민·관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생활취약가구 15명 월 2회 목욕 서비스 제공

나주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지 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 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동목욕 사업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전남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추진되었다.

‘꼭 다 밀어주세요! 목욕 힐링 서비스’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5

달 간 육조 시설을 갖춘 이동 목욕차를 활용해 생활취약가구 15명에게 월 2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주시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 시행을 맡았으며 대상자 발굴과 봉사활동에 다시면, 영강동, 이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 복지팀 인력이 투입돼 민·관 협력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기력이 떨어져 목욕탕 갈 엄두가 안났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편안히 목욕을 할



수 있어 너무 개운하고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동목욕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위생 건강 증진은 물론 정기적인 안부 살피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으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해주신 지사협 위원들과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목포시 상동 새마을협의회, 청각장애인 위한 경광등 설치



상동새마을협의회(회장 김경호)에서는 지난 7월 8일 이틀에 걸쳐 저소득 청각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경광등 설치 행사를 펼쳤다.

이번에 설치된 경광등은 집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불빛이 들어와 청각장애인 혼자 집에 있을 때 방문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전기, 설비 등 자신들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2010년부터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등 설치, 지체장애인 가정 화장실 안전대 설치 등 장애인 이웃들의 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경호 회장은 “경광등 설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광군, 11월 한달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홍보 집중 캠페인’ 실시

매일시장·버스터미널 일원서 30여명 참석



영광군은 지난 6일 매일시장 및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영광경찰서,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 활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치매 극복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민 300여 명에게 홍보물 파스 및 건강제조 포스터도 배부하였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을 위해 11월 한달 동안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조기진단·조기치료를 통해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늦추고, ※ 치매예방수칙 3, 3, 3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치매예방수칙 3,3,3이란?

- 3권(일주일에 3권 이상 읽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 3금(술은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지 말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 3행(정기적 건강검진,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 매년 치매조기 검진)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제4지역, 복지재단 100만원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제4지역(광양·구례)대회가 열린 지난 7일 이웃사랑실천을 위해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 제4지역(광양·구례) 대회를 맞아 행사를 주관한 이기종 부총재가 성금 100만원을 마련하여, 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에 지원 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제4지역 이기종 부총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여 기탁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관계자는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내 라이온스클럽은 평소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라이온스 클럽은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무안교육지원청, 장애이해교실 운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0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유,초,중,고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은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더 나아가 장애공감 문화 형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빛과 모래를 이용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교육 이론 및 스포츠 체험, 마술로 이해하는 장애이해교육, 인형극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애,

퀴즈를 통해 흥미롭게 알아가는 장애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무안복중학교 1학년 학생은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른 점이니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